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사야 40:27-31

정운돈 목사님

새가족은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를 수 있다. 많은 기존신자들도 사실 모르고 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막힌 길이 열리는 체험은 못 하고 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는 해결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죄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용서를 못 하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겠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된 것이다.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복음이 적용되면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참 제사장이 되시면, 모든 사람을 향해 정죄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다. 참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깊이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 더 깊은 진리의 단계로 가야 한다. 그 시작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12가지 문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그냥 연구하고 끝난다. 신학만 하다가 전도는 하나도 모르고 끝나게 된다. 성경 속에서 복음을 모르고 연구만 하다가 고등비평으로 넘어가고, 하나님이 없다 하다가 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을 더 깊이 알아야 한다. 이것을 두고 복음편지를 다루고, 새생명새생활로, 현장복음메시지로 가야 한다.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알아야 한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 이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 되기를 축원한다. 앞으로 전체 교재를 계속 살펴보고, 수정해 가면서 활용하려고 한다. 복음소식도 그렇고, 교재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씩 작품으로 만들어서 헌신할 것이다. 모든 구역장, 권찰님들도 미션을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란다. 안 하신 분들은 다 암송하시기 바란다. 여기에서 단 한 명만 전도자가 일어나도 시대를 개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교회 안에서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서론

(1)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에 부딪힌다. 한계가 없다는 자체가 교만이다. 인정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예쁘게 보시겠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 시아에도 한계가 있다. 멀리 못 보고, 깊이 보지도 못한다. 우리의 오감에는 한계가 있다. 또 보더라도 틀리게 본다. 부모님들도 자기 기준으로 자녀를

본다. 사람이 다 다른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 다르게 지으셨다. 그래서 성격도 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성격을 가지고 기록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다양하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인간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리더는 사람을 잘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사람은 큰 인물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계에 부딪힌다. 우리 중직자들이 큰 그릇이 되고 복음 체질이 되어서, 각인 뿌리를 바꿔서, 다니엘과 같은 응답을 맞보고 후대에게 전달하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잘 알고 인간을 잘 알아야 한다.

(2) 인간의 학문에도 한계가 있다. 지식에도 한계가 있다. 엄청난 분석 기술과 금융 기법이 있어도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를 막지 못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한 민족, 한 나라가 누구인지를 보신다. 그 기준에서 하나님은 나라들을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며 멸망시키시기도 한다. 세월 지나면 지금 예측한 것 중에서 맞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도덕적, 윤리적, 학문적인 것들도 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3)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끝없는 우주를 말씀 한 마디로 창조하셨다. 만드신 작품을 보면 작가를 알 수 있다. 물리학적인 모든 구조가 다 삼위일체다. 성경이 과학을 앞선다. 성경은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죄인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에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러니,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으라. 이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 서밋이 되시기 바란다. 죄에 대해, 사단에 대해 진노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켜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기초적인 것들이 있다.

1. 과학에도 한계가 있다.

(1) 여러 생명을 태운 배가 왜 풍랑을 만났는가? 강단 메시지를 붙잡지 않고 자기 경험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자기 지식과 과학을 가지고 말씀을 무시했다(행27:9-13).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사용하신다. 그 메시지를 붙잡는 훈련을 여러분이 해야 한다. 목회자가 부족해도 사무엘은 거기에서 응답을 찾아냈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메시지를 붙잡게 해야 한다.

(2) 풍랑을 막을 자가 누구인가? 환난,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 막

을 수 없다.

(3) 과학은 실수를 범한 적이 없는가? 더 세상을 복잡하고 악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과학이다.

2. 경험에도 한계가 있다.

하나님을 꼭 경험해야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우리가 만지고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 시각장애인에게 색깔을 설명할 수 없다. 그게 이성의 한계다. 인간의 말로, 이성으로,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더 많다.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것조차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1) 제자들이 실수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을 몰랐다.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2) 바리새인들이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보다, 자기 자리와 전통, 이권과 기득권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결국 눈이 어두워진 것이다. 이것 때문에 계속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것이다.

3. 이성적 논리에도 한계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성으로 알고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논리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반대로, 논리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도 다 무너뜨릴 수 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그게 신학자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성령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다.

(1) 율법, 제도, 지식은 한계가 있다.

(2) 니고데모의 고민은 무엇이었는데?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 3:15-16을 설명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모든 것을 믿게 된다.

(3) 니고데모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사실이 무엇인가? 이성으로, 논리로, 선행으로, 성실로 복음을 절대 알 수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성령의 역사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4.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무한하시다.

(1) 시51:10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2) 골3:10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새 사람을 입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한다.

(3) 사40:27~31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 능력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믿지 않고,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을 규정했던 것을 회개해야 한다. 인본주의를 쓰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단 5분도 하나님의 힘을 간구하지 않고, 전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일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결론 : 각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각오해야 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했다.

(1) 8미션이다. 강단의 말씀이 내 삶에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도록 부딪혀 와야 한다. 천명으로, 절대 목표 절대 사명으로 와야 한다. 그 흐름을 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 이때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제목이 나온다. 이것이 성취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절대적인 문이 열린다. 학업도 사업도 교회도 자리도 문이 열린다.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문이 열린다. 그러면 그 안에 가서 절대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주역이 된다. 어느 현장에서도 말씀운동을 펼치는 지교회 운동을 하게 된다. 이 절대 지교회를 세우는 절대 제자를 만들게 된다. 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 바란다.

(2) 이 기도제목을 붙잡고 날마다 해야 하는 당연한 것이 3오늘이다. 전도자의 삶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누린 것이 로마서 16장, 일곱 렘넌트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21가지 응답을 누린 것이다. 이 응답의 주역이 되라. 그러면 절대 헌신이 되어지는 것이다.

(3) 결국 하나님의 절대 목표, 천명 목표를 붙잡아야 한다. 나의 목표, 교회의 목표를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응답을 받아서 헌당을 할 수 있을 만큼 응답받고 축복을 받으시기 바란다. 나는 목사지만, 제일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모든 전도자, 선교사님과 제자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중직자들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나의 목표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기능의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한다.